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이 고등학생의 관계형성능력과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유인영* · 박미정**1)

*낙원중학교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The Influence of 'Healthy Couple Relationship'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Formation Competencies and Marriage Values of High School Students

Yu, In-Young* · Park, Mi-Jeong**1)

**Teacher, Nagwon middle school*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the influence of 'Healthy couple relationship' education on the relationship formation competencies and marriage values of high school students.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the 'Healthy couple relationship' lesson plan developed by the author was executed in two high schools for eight weeks from September 1 to November 3, 2018 from which the effects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healthy couple relationship'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has been effective in improving their relationship performance, which is a part of the home economics curriculum. In S high school, the paired t-test of pre-/post-test comparison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reas of 'communication', 'conflict resolution' and 'relationship formation performance'. For Sejong City campus-type joint curriculum group, where Wilcoxon signed-rank test was applied due to small sample size, showed that the overall scores as well as all the subsections of 'relationship formation performance' (*i.e.*, 'communication', 'self-understanding', 'conflict resolution', and 'empathy') have improved,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Healthy couple relationship'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marriage valu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marriage values render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hange, while in campus-type joint curriculum in Sejong City, no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cted.

In conclusion, the 'Healthy couple relationship' education can help high school students build positive values by cultivating their 'relationship formation competence', which is a part of the competencies listed in home economics curriculum, and also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marriage, by acquiring knowledge and skills to build healthy couple relationships, and learning to implement the knowledge and skills in their own lives.

Key words: 관계형성능력(Relationship formation competencies), 결혼가치관(Marriage values), 커플관계(Couple relationship), 고교 학점제(High school credit system), 선택 과목(Elective course), 가정과 교육과정(Home economics curriculum)

1) 교신저자: Park, Mi-Jeong,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ey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l: +82-43-230-3677, Fax: +82-43-231-4087, E-mail: homeedu@naver.com

본 논문은 2019년도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며 그 중에서도 가장 토대가 되는 관계는 가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는 아동 학대와 유기, 이혼, 폭력, 성관련 범죄와 청소년 미혼모 등 가족을 둘러싼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후유증도 커지면서 가정과 사회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예방책과 사후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가족 관련 문제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 양상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 및 자녀 양육의 어려움,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개인의 역할이나 신념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의 다양한 가치 규범이나 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2018년 한 해 혼인 건수는 257,600건이었으며, 이혼 건수는 약 108,700건이었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s[KOSIS], 2019). 아직까지 결혼과 이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2017년 통계를 이혼 사유별로 살펴봤을 때, 전체 이혼 약 106,000여건에서 경제문제 10,740여건을 제외하면 성격차이(약 46,000건, 43.4%), 가족 간 불화(약 7,500건, 7.1%), 정신적/육체적 학대(약 3,800건, 3.6%), 배우자 부정(약 7,500건, 7.1%) 등 61% 정도가 부부 갈등과 관련이 있었다(KOSIS, 2017). 이는 결혼 이전부터 이미 문제의 소지가 있었거나 결혼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담 및 치료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과거 가족의 안정과 번영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인 결혼에서 부부중심적인 결혼생활로 변화하면서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우애적 결혼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Choi, 2009). 평등주의와 개인주의

에 기초하여 상호애정으로 결합된 우애적 가족은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왜냐하면 제도적 결혼은 배우자간의 관계가 명확하고 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만, 우애적 결혼은 평등, 상호간의 친밀감, 애정을 강조함으로써 의사소통 기술, 문제해결 기술, 갈등해결 기술과 같은 특정한 대인관계 기술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Park, M. G. & Kim, D. S., 1997). 따라서 우애적 가족은 제도적 가족 하에서 크게 필요치 않았던 능숙한 대인관계의 운영에 관계된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기술, 갈등해결기술 등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의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으로는 현재의 생활에 적용하고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커플관계교육, 부부관계교육, 부모준비교육과 같은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가족생활의 첫 시작인 커플관계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청소년의 커플관계형성은 심리적·신체적 발달 단계로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커플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자아중심성을 극복하고 유능성과 사회인지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Lee & Kwak, 2016). 또한, 친밀한 관계 형성이라는 과업의 성취 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술 함양으로 미래의 결혼 생활을 원만히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Sears, Byers, Whelan, & Saint-Pierre, 2006, as cited in Lee, 2018. p. 153).

성이 개방화되고 이성교제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커플 간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받아들여지게 되면 관계형성에서 왜곡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커플관계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결혼 가치관과 커플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배우자 선택과 결혼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14-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결혼 및 관계 교육(HMRE: Healthy Marriage & Relationship Education) 프로그램’을 정부 주도로 수행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7). 특히 미국 조지아주의 12-18세 청소년들 1,657명을 대상으로 ‘관계 스마트 플러스(RS+, Relationship

Smarts Plus)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평가한 결과, 청소년들은 건강한 관계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으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결혼에 대해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안정된 결혼 생활과 가족형성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Futris, Sutton, & Richardson, 2013). 이와 같은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커플관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가정과 교육과정을 통해 2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결혼’ 등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Kim, 2012).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기술·가정’, ‘가정과학’ 과목에서 커플관계교육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수업 시수가 부족하여 교육적 효과를 보기 어렵거나, 가정 교과를 선택하지 않는 학교의 고등학생들은 커플관계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혼을 대상으로 한 커플관계교육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예비부부, 성인 커플 등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단계에서 커플관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시한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성간의 갈등해결능력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Yoon, 2016)와 중학생을 위한 웹활용 데이트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Jung, 2012)가 있으나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015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간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행복한 가족 관계와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를 이끌어가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전 생애에 걸쳐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반성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고 하면서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형성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이 관계형성능력과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정과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하여 ‘건강한 커플관계’를 가정과 선택과목으로 개설·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정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이 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이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커플관계교육의 의미와 목적

커플관계교육(CRE : couples relationship education)이란 부부관계를 포함하여 커플관계에 대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제공하는 구조화된 교육을 의미한다(Halford, Markman, & Stanley, 2008, as cited in Park, Lee, & Lee, 2018, p. 82). 커플관계교육은 협의와 광의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협의의 커플관계교육은 구체적인 결혼상대가 정해진 커플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행해지는 교육(Park & Kim, 1997)을 의미하고, 광의의 커플관계교육은 구체적인 결혼 상대가 정해지기 전에 행해지는 결혼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교육(Kevin, 1982, as cited in Kim, 1990, p. 9)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커플관계교육을 구체적인 결혼 상대가 정해지기 전에 행해지는 커플 관계 형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교육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커플관계교육은 초기에는 치료적이고 회

복적인 관점에서 결혼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교육적인 면을 강화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을 기르고 개인과 가족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예방적인 접근으로 발전하고 있다(Yu & Park, 2019).

Lee, Choi, Seo와 Chi(2004)는 커플관계교육을 생애적 과정의 ‘성공적인 첫 단추 끼우기’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으로는 적응하고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가정형성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어 가족을 통한 가치관의 전수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생활의 첫 시작인 커플관계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Kim K. Y.(1997)은 예비부부들을 위한 커플관계교육의 목적으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기술과 창조적인 갈등해결의 습득, 스트레스 기능 영역에 대한 대비, 인간으로서의 성숙 등을 제시하였다. Lee와 Lee(2015)는 대학생들이 이성과의 사귀, 배우자선택과 결혼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며 커플관계교육 프로그램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올바른 결정과 결혼을 한 후에도 건강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Ko와 Chun(2015)도 일부 대학에서 결혼과 가족 혹은 결혼과 성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교양 선택과목으로 최소의 학생들만 선택하여 수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결혼을 앞둔 예코세대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대학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확대 실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커플관계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커플관계교육 프로그램은 특성화고 여학생들의 이성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Yoon, 2016)와 예비 부모교육에서 커플관계교육을 부분적으로 다룬 연구(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Noh, 2017; Yoon, 2016)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각 주별로 학교와 종교기관 등에서 관계의 성공 요인, 배우자 선택, 결혼, 이혼, 미혼모 등의 사회적 결과, 가족생활과 사랑의 기술, 성격 발달, 성적 절제 등 다양한 내용의 커플관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Chung, 2016)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커플

관계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건강한 커플관계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단기간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발달과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 생애적 관점에서 커플관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결혼은 인류역사에서 가족을 이루는 보편적인 수단이며 개인의 삶에서 인생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이므로 결혼적령기에 도달하기 전의 연령층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커플관계와 결혼생활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에는 성인이 되는 대학생 시기에 본격적인 이성교제가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성교제의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청소년의 데이터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성간의 관계형성과 의사소통, 사랑, 결혼 등의 현실적인 커플관계교육이 성인기 이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친밀한 관계를 발달시켜야 하는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커플관계교육의 개입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인한 후유증과 가족 및 사회적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라도 효과적인 것이다.

2. 커플관계교육의 내용과 효과

커플관계교육의 교육내용을 보면, 결혼관계 발달을 위해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같은 개인 상호적인 기술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내용으로 의사소통, 성생활, 결혼에 대한 헌신, 원가족, 재정관리기술, 갈등해결, 자기이해, 역할기대 등이 일반적이다(Korea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2011). Park, Lee와 Lee(2018)의 연구에서 분석대상 프로그램에 포함된 총 193회기 중 회기별로 다루어진 주제는 ‘갈등해결과 의사소통’이 가장 많았고(41회기, 21.2%), ‘관계 성장을 위한 개인적 자원’(27회기, 14.0%), ‘관계의 시작’(21회기, 10.9%), ‘커플관계의 중요성 인식’(20회기, 10.4%), ‘평등적 역할’(15회기, 7.8%), ‘커플의 성’(15회기, 7.8%), ‘원가족과 친족, 친구’(10회기, 5.2%), ‘재정관리’(6회기, 3.1%)의 순이었다.

커플관계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부분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커플관계에서 주된 과업은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건강한 커플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 이해를 통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나 관계형성능력의 미숙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원만하게 해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소년기의 미숙한 관계 형성은 이후 결혼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계형성능력과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커플관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13편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가족정책기초연구(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를 보면,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관련 변수를 사용한 연구가 7편(Baik, Seo & Shin, 2003; Jung, O. B., Kim, K. E. & Park, Y. J., 2005; Kim K. Y., 1997; Kwon & Chae, 2000; Lee, 2008; Park & Kim, 1997; Park & Lim, 2009)이었고, 성역할 태도 관련 변수를 사용한 연구가 6편(Jung & Kim, 1997; Kwon & Chae, 2000; Lee & Kim, 2007; Lee, 2003; Park & Lim, 2009; Son & Kim, 2005), 관계만족도, 적응 및 친밀감 등 전반적인 커플관계 관련 변수를 사용한 연구가 4편(Jung, 2005; Kim & Jung, 2001; Kim, K. Y., 1997; Kim, 2010)이었다. 결혼준비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면 커플관계교육에 참여한 예비부부가 그렇지 않은 예비부부에 비해 관계향상, 갈등해결, 성에 대한 태도, 평등한 역할이 향상(Park & Kim, 1997)되었고,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Jung, 2004). 대학에서 실시하는 강좌를 수강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로 결혼관, 가족관, 사랑관, 배우자관, 성역할관을 사전·사후로 비교한 결과(Ko & Chun, 2015; Lee & Chun, 2004), Lee와 Chun(200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선택적인 결혼관, 개방적인 가족관, 현실적인 사랑관을, 여학생은 필수적인 결혼관, 덜 개방적인 가족관, 낭만적인 사랑관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Ko와 Chun(2015)의 연구에서는 성공적 결혼관, 현실적 사랑관, 결혼의 실체에 대한 이해, 양성평등적인 성역할 태도에서 커플관계교육의 효과가 있었다. Kim, Park과 Goo(2006)의 연구에서는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는 대학생 집단에서 커플관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고, 남자 대학생은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Park & Kim, 1997)에서 남성의 프로그램 참여가 부족하며 의사소통기술 훈련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

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Carroll과 Doherty(2003)는 총 23편(1971-2001)의 커플관계교육 연구를 고찰하여 7편을 메타분석한 결과 커플관계교육은 대인관계기술과 관계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었고, 총 28편(1975-2007)의 커플관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Fawcett 등(2010)도 의사소통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커플관계교육의 효과성은 커플인 경우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관련 변수, 성역할 태도 관련 변수, 관계만족도, 적응 및 친밀감 등 전반적인 커플관계 관련 변수로 나누어지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결혼관, 배우자관, 사랑관 등의 미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아직 파트너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자기인식 및 이해를 토대로 관계형성능력의 함양을 위한 내용요소를 선정하고 커플관계교육이 미래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 2015 가정과 교육과정과 관계형성능력

가정과교육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개인과 가족이 가정생활 속 직면하는 실질적 문제들에 대해 도덕적 판단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이들을 통해 행복한 가정,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과 사명으로 한다. 이러한 가정과교육의 목적과 사명은 Brown과 Paolucci(1979)가 미국가정학회에서 제창한 가정학의 사명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Brown과 Paolucci(1979)에 의하면 가정학의 사명과 목적은 가족으로 하여금 허버마스의 비판이론에 근거한 세 가지 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성숙한 자아형성을 돕고, 나아가 가족을 둘러싼 사회가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정학을 모학문으로 하는 가정과 교육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명과 목적을 구현할 수 있다(Noh, 2017).

2015 기술·가정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에서 고등학교 기술·가정과와 '가정생활' 분야는 최근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사회, 다문화사회로의 급변으로 다양한

가정생활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가족의 역기능적 현상과 자연 재해,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가정교육이 ‘개인과 가족이 전 생애에서 직면하게 될 실생활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자의 실천적 경험을 통해 개인의 자기주도적인 삶과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즉, 가족을 형성하고, 부모됨과 자녀 돌보기를 통해 배려와 돌봄을 실천하는 ‘인간 발달과 가족’, 우리나라 전통 가정생활 문화를 토대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과 세계화 방안을 제안하며, 가정생활 문화의 주체로서의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정생활과 안전’,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을 균형 있게 설계하여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조화롭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자원 관리와 자립’을 통해 실천적문제해결능력, 생활자립능력, 관계형성능력의 교과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과 교과 역량 중 본 연구에서는 ‘관계형성능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관계형성능력’은 대상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과 공감, 배려와 돌봄으로서 공동체 감수성을 키워 자신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과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

커플관계는 미혼의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수반하는 관계이다. 건강한 커플관계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와 신념, 경험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 고등학생들에 대한 커플관계교육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관계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의사결정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청소년인 고등학생이 한 사람의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생활자립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가정교육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커플관계교육을 통해 관계형성능력

을 기르는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성인이 되기 전부터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중대한 과업 중의 하나이다.

2000년 이후 ‘가족과 인간 발달’ 영역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살핀 연구에서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과흥미도와 관심도, 내용 이해 등의 수업만족도(Han, 2009; Jung, Kim & Park, 2005; Park, 2009)와 창의성(Jung, Kim & Park, 2005; Lee, 2014), 자아정체감, 자아효능감, 셀프리더십, 자아탄력성, 자아인식, 배려와 나눔, 사회성 등(Kang, 2017; Kim, 2009; Lee, 2009; Paik, 2015; Park, 2018; Yu, 2012)의 인성 요소를 교육과정의 효과로 알아보았다.

이러한 인성 요소들은 가정교과의 ‘관계형성능력’과 관련이 있지만 가정교육의 효과로서 가정교과의 핵심 역량이 향상되는지를 살핀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의 실행으로 가정교과의 교과역량인 ‘관계형성능력’이 함양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을 실행한 후 관계형성능력과 결혼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의 실험 설계는 연구자가 개발한 고등학생을 위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 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사용하였다.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전과 후에 각각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은 <Table 2>와 같이 2개의 대단원과 8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과 시청각 자료를 포함하여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3시간 블록 수업 8회에 해당하는 24차시분의 교수·학습과정안과 교수자와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및 참고자료를 개발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현실적

Table 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in the family and human development areas

	Title	Author	publisher	Year	Effect
1	‘청소년의 힘 복돋우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연구: 창의적 사고를 통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와 ‘나와 가족의 이해’ 단원 학습	정옥분 김경은 박연정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	2005	교과목에 대한 이해도, 창의성
2	고등학교 기술·가정 ‘부모됨’ 영역의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실천적 주론 수업 중심으로	박수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부모됨의 동기, 준비, 역할
3	동기 유발 전략을 적용한 가정과 ARCS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청소년의 성과 친 구관계’ 단원을 중심으로	한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9	학생들의 동기 수준,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
4	자아정체감 형성을 돕는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효과: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 ‘자아정체감 발달’ 영역을 중심으로	이현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9	자아정체감
5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실천적 문제 중심의 중학교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와 ‘청소년의 자기관리’ 내용을 중심으로	김은정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셀프리더십
6	기술·가정 교과와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의 자기관리’ 단원의 실천적 문제중심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효과 검증: 중학생의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유지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행복감
7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가족복지서비스’ 영역의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을 활용한 교수·학습과정안 개발과 적용	이보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창의적 문제해결
8	배려와 나눔 실천을 위한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과 평가: 고등학교 기술·가정 ‘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 문화’ 단원을 중심으로	백민경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5	자아인식, 배려와 나눔 인식, 배려와 나눔 실천
9	ARCS 동기유발 전략을 적용한 인성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평가: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의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강지민	전남대학교	2017	인성의 하위 항목 (정실, 배려·소통, 책임, 자기조절, 정직·용기, 지혜, 정의)
10	중학교 자유학기의 가정교과 연계 주제선택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박선영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8	인성 (사회성, 정체성)

으로 교과 수업을 3시간 블록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시간도 부족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선택하거나 시간을 줄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개발된 고등학교 가정과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은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2개 장소(A, B)에서 실행하였다. 그 이유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하여 가정교과 선택과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발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은 24차시로 구성되어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모두 실행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충청북도에 소재한 S고등학교에서 1인의 가정과 교사가 한 주제 당 2시간으로 수업 활동을 줄여 16차시로 축소하여 실행하였다. 한편 8회 24차시에 걸쳐 이 교육과정을 모두 실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세종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에 고등

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관계와 사랑의 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였고,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의 전 과정을 실행하였다.

교육과정의 실행은 2018년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간에 명절연휴, 1차 지필평가 기간 등으로 제외되는 기간을 빼고 8주간 진행되었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충청북도 S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91명과 세종시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건강한 관계와 사랑의 심리학’

Table 2. Composition of 'healthy couple relationship' curriculum

unit	theme	content element	objective
1 단원 낭만적인 관계 이해하기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자기이해와 미래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존감 향상 • 건강한 자아상 확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여 건강한 관계를 위한 토대를 형성한다. 2. 주위의 압력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한다. 3. 성숙의 의미를 알고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분석한다.
	사랑의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지식 및 성적 이해 • 정서적 친밀감 • 사랑과 친밀감의 형성 및 유지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요소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안다. 2. 낭만적 관계의 본질인 친밀함과 사랑의 의미를 구분한다. 3. 열정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성숙한 사랑의 실현의지를 가진다.
	건강한 관계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이성교제 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 2. 건강한 관계의 기준을 자신의 관계에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상호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위해 젠더감수성을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다.
	헤어짐과 데이트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해 • 성역할과 역할분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서 헤어짐에 대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2. 안전한 이별의 시기와 방법을 알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3. 데이트 폭력의 원인과 영향, 예방법을 알 수 있다. 4. 폭력적인 관계의 징후를 알고, 대처할 수 있다.
2 단원 건강한 커플관계를 위한 토대 만들기	관계를 강화하는 의사소통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 성장배경과 가정배경 이해 •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2. 의사소통 방법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3.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자신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관계를 강화하는 의사소통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감과 경청'의 방법과 효과를 인식할 수 있다. 2. 효과적인 공감과 경청의 방법을 실제 대화에 적용할 수 있다. 3.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을 실제 대화에 적용할 수 있다.
	관계를 강화하는 갈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대처방식 • 자기조절 • 갈등해결 기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강한 관계를 위한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갈등 이면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 3. 갈등해결단계에 따라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
	언젠가 행복한 결혼을 위한 가능성 높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선택 • 바람직한 결혼 태도 정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는 방법을 알고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다. 2. 행복한 부부의 특징을 분석하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3. 결혼이 주는 혜택을 알고, 미래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Table 3. The practical characteristics of 'healthy couple relationship' education

특성	실행대상	A	B
		S고등학교	세종시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수강생
소재지		충북 청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유형		공립 고등학교(여학교)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강좌
참여 학생 수		1학년 4개 반 91명(여)	1개 강좌 2개 학교 1학년 7명(여)
수업 실행 차시		8주 16차시	8주 24차시
지도교사의 인적 사항		교육경력 29년(여)	교육경력 26년(여)
		가정교육학 박사	본 연구자
		고등학교 경력 19년	고등학교 경력 9년
		중학교 경력 10년	중학교 경력 17년

과목을 수강한 1학년 학생 7명(여)이다. 편의상 전자를 A, 후자를 B로 표시하였다. 연구 대상을 두 그룹으로 구성한 것은

24차시로 개발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을 '기술·가정' 시간을 활용하여 16차시로 실행한 효과와 공동교육과정에서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구분		A(N=91)		B(N=7)	
		N	%	N	%
성별	남	0	0	0	0
	여	91	100	7	100
이성교제 경험	없다.	63	69.2	6	85.7
	1~2회	21	23.1	1	14.3
	3회 이상	7	7.7	0	0
이성교제 기간	6개월 미만	17	60.7	1	100
	6개월 이상 ~1년 미만	7	25	0	0
	1년 이상	4	14.2	0	0

24차시로 실행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의 개설 과목명이 본 연구와 다른 이유는 과목 개설시 학생들이 ‘사랑’, ‘심리학’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신청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장소가 세종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지리적으로 부담을 느껴 수강 신청률이 낮았다. 또한, 교육청에서 강좌를 개설한 장소가 여고이다 보니 수강생 모두 여학생이었다. 이 학생들은 수시 전형에 대비하여 전공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자신의 선택으로 신청하여 수업 참여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두 그룹의 연구대상자는 전체 98명으로 모두 여학생이다. 이성 교제 경험이 없었던 경우는 A가 69.2%, B가 85.7%로 최근 초·중·고생 총 1만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실제 63.4%의 학생들이 이성 교제 경험이 있고 36.6%의 학생들만이 없다고 답한(News2day, 2018. 2.7) 것과 비교해 볼 때, A, B 두 그룹 모두 이성교제 경험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이성교제 경험 비율이 낮았던 이유에 대해 A학생들은 여자 고등학교이고 출신 중학교도 여자중학교의 출신 비율이 높았고, B학생들도 7명 중 5명이 여고에 다니고 있으며 5명 모두 여중을 졸업하여 이성과 만날 기회가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성교제 기간도 A는 이성교제 경험 학생의 60.7%가 6개월 미만이고 B는 100%가 6개월 미만으로 짧았다. 구체적인 특성은 <Table 4>와 같다.

3. 측정도구

가. 관계형성능력

관계형성능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정과 교과 역량으로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초로 관련 선행 연구 중 Song(2008), Kim(2015), Jeon & Kwon(2012), Park(2017), Paik(2015)이 사용한 도구를 참고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인 공동체 감수성, 관계 소중히 하기, 공감, 배려, 돌봄, 존중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56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문항은 문항의 질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가정교육과 교수와 협의하여 중복되거나 의미가 유사한 문항을 제거하고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문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수정하여 총 40문항으로 척도를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관계형성능력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부정문항(28, 29, 30, 31, 32, 33, 34번)은 역채점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형성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나. 결혼 가치관

‘결혼 가치관’은 결혼관, 결혼인식, 결혼이미지 등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Kim, 2009). 선행연구에서 결혼 가치관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가치관(Kim & Lee, 1998; Kwon, 2003; Lee, 2006; Lee, 2014)으로,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실

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한다(Lee, 2006)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결혼 가치관을 청소년들이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해 가지는 가치관으로 미래 결혼경향성의 근거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ung 등(1997)이 개발하고, Lee(2006)가 수정 재구성한 척도를 Kim(2009)이 재구성한 17개의 문항과 Yoon(2006), Kim(2017)의 연구를 참고로 ‘청소년인 고등학생들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숙한 결혼 가치관을 형성하여 미래의 건강한 가족형성을 돕는다.’라는 연구 목적에 맞게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가치관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4.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018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경기도에 위치한 H고등학교 1학년 6개 학급 177명에 실시하여 미응답 23명을 제외하고 설문에 응답한 154명의 자료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가. 관계형성능력

본 연구에서는 ‘관계형성능력’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된 관계형성능력 측정 도구는 ‘의사소통(18문항)’, ‘자기이해(9문항)’, ‘갈등해결(7문항)’, ‘공감(6문항)’의 4개 요인으로 나뉘었다. 신뢰도 분석 결과 관계형성능력 검사 전체의 Cronbach α 값은 .977이었고, 하위영역 별로는 의사소통 .980, 자기이해 .950, 갈등해결 .961, 공감 .949로 매우 높았다.

나. 결혼 가치관

‘결혼 가치관 척도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설문을 작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결혼은 한 번만 해야 한다.’와 ‘연애와 결혼은 일치해야 한다.’와 같이 4개 문항이 본 연구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재검토 후에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가치관’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 α 값은 .942로 높게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설문지는 <Table 5>와 같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고,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의 차이를 보기 위해 A그룹(충북 S고등학교)은 대응표본 T 검정(A Paired T-test)을,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은 B그룹(세종시 캠퍼스공동교육과정)은 비모수검정의 방법으로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6.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2018년 7월 31일 한국교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IRB승인(승인번호: KNUE-2018-H-00227-1-2)을 받아 승인에 따른 표준 절차에 의해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학생과 보호자 1명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다.

수집된 자료의 익명성과 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자료는 학문적으로만 활용됨을 안내하였고, 연구 수행 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 윤리 문제를 최소화하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건강한 커플관계’교

Table 5. Configuration of questionnaire (final)

configuration (the number of questions)	Item content	Cronbach α
의사소통 (18)	5. 나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잘 하는 편이다. 6.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7.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잘 해결하는 편이다. 10.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다. 12.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늘 친근감을 느낀다. 13. 나는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이나 욕구를 잘 깨닫는다. 14.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수성은 예민한 편이다. 15.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표현은 개방적이다. 16.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잘 표현한다. 19.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20.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잘 공감하는 편이다. 21.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22. 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성격을 잘 파악한다. 23. 나는 상대방이 말하는 이면에 담긴 뜻 (속 뜻)을 잘 알아차린다. 24.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잘 알아차린다. 25.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소한 변화를 잘 발견한다. 26. 나는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기분과 나의 감정 상태를 잘 안다. 36.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	.980
관계형성 능력 (40)	자기 이해 (9) 1. 나는 인간으로서 나 자신에 만족한다. 2.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3. 다른 사람은 나를 만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4.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할 것이다. 8. 나는 다른 사람과 쉽게 대화를 이끌어간다. 9.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그것을 발전적으로 받아들인다. 11.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해주는 편이다. 17. 나는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관심사를 잘 이야기한다. 18.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950
갈등 해결 (7)	28. 나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면 짜증을 잘 낸다.* 29. 나는 갈등 상황이 생기면 당황한다.* 30. 나는 감정이 상하게 되면 오랫동안 화가 나 있거나 토라져 있다.* 31. 나는 갈등상황이 만들어질 때 회피하려고 한다.* 32.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면 신경이 예민하고 자신감이 없어진다.* 33. 나는 친구와의 의견대립은 해결하기 힘들다.* 34. 나는 급작스러운 갈등은 조절하기 힘들다.*	.961
공감 (6)	27. 친구가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준다. 35. 나는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화내지 않고 그 문제에 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37.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38. 내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면서 대화한다. 39. 나는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용기(감동)를 주려고 노력한다. 40. 나는 친구가 칭찬해주면 고맙다는 표현(말, 행동 등)을 하는 편이다.	.949
결혼 가치관 (8)	1. 결혼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2. 결혼은 외로움을 덜어준다. 3. 결혼은 좋은 것이다. 4.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다. 5. 결혼은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6. 결혼은 경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 7. 결혼은 사람을 성숙시킨다. 8. 결혼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942

*표시된 문항은 역 문항임.

육을 16-24차시 실행한 후에 관계형성능력과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1. 관계형성능력의 변화

1) A그룹: S 고등학교

고등학생을 위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의 적용이 ‘관계형성능력’과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대응표본 T 검정(A 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관계형성능력’은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것을 사용하였다.

관계형성능력의 사전 사후 값을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이 전체 ‘관계형성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 영역에서는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이 고등학생의 관계형성능력을 함양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특히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이해’와 ‘공감’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이해와 공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본 교육의 주제가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 설계되었고, 공감과 관련한 내용 요소는 의사소통, 갈등해결 등에서 부분적으로 포함시켰으나 따로 주제로 구성하여 다루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B그룹: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고등학생을 위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의 실행이 관계형성능력의 하위요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통계분석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B 그룹의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관계형성능력 전체 점수는 3.69에서 4.04로 0.35점 높아졌다. 하위요인 별로는 ‘의사소통’, ‘자기이해’, ‘갈등해결’, ‘공감’의 모든 영역에서 각각 0.38, 0.19, 0.42, 0.4점 상승하였으나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able 6. The change of relationship formation competencies in group A

N=70

요소	구분	사전		사후		t	p
		Mean	SD	Mean	SD		
의사소통		3.62	0.51	3.78	0.57	2.21*	.03
자기이해		3.62	0.51	3.55	0.64	-1.05	.29
갈등해결		3.09	0.68	3.84	0.50	4.26***	.00
공감		3.84	0.50	3.78	0.59	-.96	.34
전체		3.54	0.43	3.70	0.45	-2.67**	.01

*p<.05, **p<.01, ***p<.001

Table 7. The change of relationship formation competencies in group B

N=7

요소	구분	사전		사후		Z	p
		Mean	SD	Mean	SD		
의사소통		3.77	0.36	4.15	0.36	-1.52	.128
자기이해		3.67	0.37	3.86	0.45	-1.21	.225
갈등해결		3.27	0.84	3.69	0.84	-.95	.343
공감		4.05	0.58	4.45	0.46	-1.36	.173
전체		3.69	.38	4.04	.426	-1.52	.128

2.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1) A그룹: S 고등학교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대응표본 T 검정(A 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Table 8>과 같이 A그룹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40, p<.05$). 즉, '건강한 커플관계'교육의 실행이 고등학생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2) B그룹: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B 그룹의 경우, 결혼 가치관의 변화는 S고등학교와 달리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9> 참고). 이는 사전검사에서 S고등학교 학생들의 결혼가치관 평균이 2.83으로 낮은 점수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수강생들은 3.50으로 높은 편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B그룹의 학생들은 먼 거리를 왕복해야 함에도 본 강좌를 신청할 정도로 수업 전에 이미 사랑, 결혼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녔기 때문에 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관계형성능력과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고등학생용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을 2018년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8주간 두 개의 고등학교 수업에 각각 실행한 후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A그룹은 충북 청주시 S 고등학교 1학년 4개 학급 91명을 대상으로 16차시를 실시했고, B그룹은 세종시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1개 반 수강생 7명을 대상으로 24차시 수업을 실행하였다.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단일 집단 사전·사후 실험 집단 설계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관계형성능력과 결혼 가치관 척도로 사전, 사후 설문 조사를 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자료는 SPSS 22.0에서 대응표본 t-test, Wilcoxon 부호-서열 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을 위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이 고등학생들의 '관계형성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 대응표본 T 검정(A 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A그룹(S 고등학교)은 '의사소통', '갈등해결'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관계형성능력' 전체의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이 가정과의 교과

Table 8. Changes in the value of marriage in group A

N=70

요소	구분	사전		사후		t	p
		Mean	SD	Mean	SD		
결혼 가치관		2.83	.63	3.02	.83	2.40*	.02

*p<.05

Table 9. Changes in the value of marriage in group B

N=6

요소	구분	사전		사후		z	p
		Mean	SD	Mean	SD		
결혼 가치관		3.50	.35	3.48	.37	-.11	.92

역량인 관계형성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가 적었던 B그룹(세종시교육청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학생들은 비모수 통계분석인 윌콕슨 부호-서열 검정(Wilcoxon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여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의사소통’, ‘자기이해’, ‘갈등해결’, ‘공감’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각각 0.38, 0.19, 0.42, 0.4점 상승하였으며 전체 관계형성능력도 3.69에서 4.04로 0.3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향상되었다.

둘째,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이 고등학생들의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A그룹(S고등학교)은 수업 후에 ‘결혼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다($t=2.40, p<.05$). 그러나 B그룹(캠퍼스 공동교육과정) 학생들은 결혼 가치관 점수가 3.50(M)에서 3.48(M)로 약간 낮아졌고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생을 위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은 고등학생들의 관계형성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특히 ‘관계형성능력’ 중에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영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갈등해결’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쉽게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갈등해결’은 가치관의 문제라기보다는 해결 방법을 몰라서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 해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등학생의 갈등 조절이나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은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따라서 가정과의 교과 역량인 ‘관계형성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한 커플관계’를 고교 학점제에 대비한 가정과 선택과목으로 적극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관계형성능력’의 하위 개념에 포함된 ‘의사소통’, ‘갈등해결’, ‘공감’, ‘자기이해’는 OECD(2018)에서도 미래 역량으로 제시한 바 있어 개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결혼 가치관’은 대상에 따라 A그룹은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였고, B그룹은 변화가 없었다. 그 이유는 사전검사에서 A그룹 학생들은 결혼 가치관 점수가 낮은 수준이었고, B그룹(캠퍼스 공동교육과정)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A그룹 학생들에 비해 점수가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공동교육과정 수강생들의 경우 ‘관계’ 교육과 ‘사랑’, ‘심리학’ 등에

관심이 많아 자발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한 학생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커플관계 교육과 관련하여 기대감이 높았으며, 교육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막연한 기대감과 비현실적인 인식이 성숙과 노력을 요하는 과정임을 깨닫고 다소 현실적인 기대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높은 수업 만족도와 주제별 활동에도 불구하고 결혼 가치관에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은 여대생들의 결혼 가치관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편이며 교육의 효과도 미미하다는 연구(Auh & Kim, 2013; Kim, 2017)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지금까지 가정과교육 관련 선행연구에서 교과역량을 척도로 개발하여 활용한 연구는 없었고 사용된 척도도 대부분 수업의 효과, 창의성, 인성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과정의 실행이 실제 교과역량을 함양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역량인 ‘관계형성’ 척도를 개발하여 그 효과를 살폈다. ‘관계형성능력’의 하위 요소는 관계 소중히 하기, 존중, 공감과 배려, 돌봄, 공동체 감수성 등이었다. 선행 연구 고찰을 토대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요소와 의미가 유사한 요소인 만족감, 의사소통, 이해성, 세심함, 온정, 갈등해결,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경청, 타인이해, 배려 등의 요소를 추출한 후 타당도 검증을 통해 관계형성능력 척도를 구성하였다.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된 관계형성능력 측정 도구는 의사소통, 자기이해, 갈등해결, 공감의 4개 요인으로 나뉘었고, 관계형성능력 검사 전체의 Cronbach α 값은 .977로 신뢰도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과정과 수업을 실행한 후 교과 역량이 실제로 함양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과역량을 개발하여 활용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관계형성능력’ 외에 가정과의 다른 교과 역량에 대한 척도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서 실제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여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업

실행을 위해 제안했던 3개 학교 중 2개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상의 문제나 교사의 사정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워졌고, 실행 가능하였던 학교가 여자고등학교였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에 강좌를 개설했지만 수강자가 모두 여학생이었고 수강자수가 적어 효과를 확인하기에 제한점이 많았다. 따라서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남녀 학생 모두에게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의 효과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입학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이 재학하는 곳이므로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과는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한 실행을 통해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과정의 개설 필요성을 상세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가정과 교과역량인 관계형성능력의 척도를 개발하여 효과를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관계형성능력 뿐 아니라 생활자립능력, 실천적 문제해결능력의 척도 개발을 통해 교육과정의 효과를 검증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통해 가정교과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관련 연구들이 어느 정도 교과역량을 함양시키는데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관계형성능력과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역량이나 가치관은 수업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검사 뿐 아니라 추후 검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과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Auh, S. Y., & Kim, J. E. (2013). Research on the evasion & willingness to marriage formation among the students in the national colleges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6(3), 135-149.

Brown, M., & Paolucci, B. (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Carroll, J. S., & Doherty, W. J. (2004).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premarital prevention programs: A meta-analytic review of outcome research. *Family Relations*, 52, 105-118.

Choi, J. Y. (2009). A qualitative study on changes in mother-child relationship through marriage process: Focusing on Christian famil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3), 1697-1725.

Chung, H.-S.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1), 151-159.

Chung, O.-B., Kim, K.-E., & Park, Y.-J. (2005).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mpowering youth progra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7(3), 17-33.

Chung, H. S. (2016).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2nd)*, Seoul: Shinjeong.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7). Healthy marriage and relationship education programs for youth. Retrieved from www.acf.hhs.gov/sites/default/files/opre/years_task_46_final_report_finalv2_b508.pdf

Eo, S. Y., & Kim, J. E. (2013). 대학생들의 결혼기피태도와 결혼 의지에 관한 연구[A Study on marriage avoidance and marriage will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Conference*, 2013(5), 370.

Fawcett, E. B., Hawkins, A. J., Blanchard, V. L., & Carroll, J. S. (2010). Do premarital education programs really work? A meta-analytic study. *Family Relations*, 59, 232-239.

Futris, T. G., Sutton, T. E., & Richardson, E. W. (2013). An evaluation of the relationship smarts plus program on adolescents in Georgia. *Journal of Human Sciences and Extension*, 1(2), 1-15.

Han, J. (2009). *Development of 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program by keller's arcs model: The case of a unit 'youth sex and peer relationship' in middle school seventh-grade technology & home econom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Jeon, M. S.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youth interpersonal

- relationship competency progra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6), 149-177.
- Jung, H. Y. (2012). Development & evaluation of web-Based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Dong-A university. Pusan, Korea.
- Jung, H.-S. (2004). A Basic study for developing "The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1), 91-101.
- Jung, Y. K. (1997).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behavior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J. M. (2017). *Development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plans using ARCS strategies to improve character for middle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chapter 'Understanding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Jeonnam university, Kwangju, Korea.
- Kim, B. Y. (2015). *What fosters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child communication and a child's interpersonal competence in early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im, E. J. (2009). *Developing and implementing practical problem based lesson plan to improve self - leadership skills - focusing on the unit of 'youth's self management' in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Kim, G. Y. (1997). Marriage and sex educ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 263-280.
- Kim, G. Y., & Chung, H. H. (2001). (A)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arriage prepa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hris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2), 181-196.
- Kim, H. S. (1990). *A development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model for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S. (2010).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marriage and sex education program using a university liberal-art cours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4), 1017-1032.
- Kim, J. M. (2017).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n the perspectives of marriage among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O., Park S. M., & Goo. H. S. (2006).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1(3), 201-222.
- Kim, J. W. (2012). *A study on the change of family-related contents in home economics by national curriculum: focus on the 1st-the 2007 revised national curriculu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Kim, K. S., Lee, S. M. (1998). Marriage-ideology reflected on the view of marriage of unmarried men and wom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1), 27-43.
- Kim, K. S. (2017). A Study on the views of marriage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scienc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2(1), 217-225.
- Kim, K. Y., & Chung, H. H.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marriage prepa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hristian premarital coupl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2), 181-196.
- Kim, Y. R. (2009). *A study on the marriage value and its associated variables for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based on the family ecological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o, M. S., & Jeon, Y. I. (2015). The effects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on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6(3), 111-128.
- Korea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2011).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 Gyeonggi: Gyomoonsa.
-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7). A census of population.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04&conn_path=12
-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9). 2018 Wedding & divorce statistics. press release(2019.03.20.) Retrieved from <http://kosis.kr/>
- Kwon, I. S. (2003). *A study for the identity, outlook on marriage, and sexual awareness of undergraduates*. Unpublished

-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Yeongnam university, Daegu, Korea.
- Kwon, J. H., & Chae, K. M. (2000).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premarital educational program.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2), 207-218.
- Lee, A. N. (2018). The root of a low birth, loss of romance. *news2day*, Retrieved from <http://www.news2day.co.kr/98775>.
- Lee, B. Y. (2014).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curriculum utilizing the creative problem-solving model of 'home welfare service' domain in middle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Lee, H.-J. (2009). *A research on the application and effectiveness of a teaching and learning plan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self-identity: a focus on the 'self-identity development' chapter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Lee, H.-J. (2018). An analysis of recent research on dating violence in Kore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4), 153-161.
- Lee, J. G., & Lee, S. H. (2015).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university curricula on marriage preparation education and christian education for the eco-boomer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7, 203-230.
- Lee, J.-S. (2008). *A Study on the effect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on the basis of influencing mutual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W. (2006). *On the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views over family, marriage, an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Korea.
- Lee, M. S., & Kwak, J. H. (2016). A Study on the Effects of Dating Experiences on Soci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welfare Management*, 3(1), 131-152.
- Lee, S. G. (2014). *Development of structural models regarding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on marri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eagu haany university, Deagu, Korea.
- Lee, S. H., & Kim, H.-S. (2007). Effects of a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for single person. *Korean Women Health Nurse*, 13(4), 272-279.
- Lee, S. H. (2003). *Study on the efficacy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as an elective course of the university: Focusing on undergraduate students of the 'S'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 Lee, S.-H., & Chun, Y.-J. (2004). Gender and the impact of premarital education cours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4), 127-239.
- Lee, Y.-H., Choi, B. A., Seo, M. R., & Chi, Y. S. (2004). Premarital preparation program for better life - focused on NGO's movemen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1), 27-43.
- Ministry of education. (2015). *The practical arts (technology · home economics) and Informatics curriculum*. Proclam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74 [Annex 10]. Seoul: Autho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A basic study on the family policy*.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6). *Preliminary parental education programs for teenagers*.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2017 Youth comprehensive survey*.
- Noh, H.-Y., Cho, J. S., & Chae, J. H. (2017).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based pre-parental educa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OECD.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about/documents/E2030%20Position%20Paper%20\(05.04.2018\).pdf](http://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about/documents/E2030%20Position%20Paper%20(05.04.2018).pdf)
- Paik, J. E., Seo, S. Y., & Shin, S. J. (2003). Development of the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for Premarital Coup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8(1), 1-27.
- Baek, M. K., & Cho, J. S. (2015).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Home Economics Teaching Learning Process Plan for the Practice of Caring and Sharing: Focusing on*

- 'Happy Family Life Culture' unit of high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Park, E. H. (2017). *Re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national curriculum based on backward design for improv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 H., & Lim, S. Y.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s for marriage expectant coupl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2), 29-43.
- Park, J. S., Lee, J. K., & Lee, J. L. (2018). Couples relationship education program research in Korea: An analysis of program development in human ecology journal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2(4), 81-105.
- Park, M. G., & Kim, D. S. (1997).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Marriage preparation program for premarital coupl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4), 47-78.
- Park, S.-G. (2009).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aching program for the 'being parents' segment of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 focusing on practical inference instru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Park, S. Y. (2018).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opic selection activity program related to home economics education for middle school free semes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Sohn, J. Y., & Kim, J. O.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premarital education program for singl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3), 219-236.
- Song, W.-S. (2008). *Development of program for improvement of class based personal relationship by class for primary school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Yoon, H. S. (2016). *A study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mproving ability of conflicts resolution with opposite sex among specialized high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Yoon, M. R. (2006). *(the) Factors that influence high school students' viewpoints of marriage and children: Focusing on the demographic social variables and psychological home enviro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Yu, I. Y., & Park, M. J. (2019). Development of 'healthy couple relationship' curriculum in high school based on backward desig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1(3), 1-21.
- Yu, J. H., & Lee, Y. S. (2012). *Development of practical problem based teaching-learning plans and evaluation of its effectiveness on middle school students' self efficacy, ego resilience and happiness: focused on the unit 'youth's self management' in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국문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커플관계'교육이 관계형성능력과 결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건강한 커플관계'교육을 2018년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8주간 두 개의 고등학교 수업에 각각 실행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을 위한 '건강한 커플관계'교육은 가정과의 교과역량인 관계형성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A그룹(S고등학교)은 '의사소통', '갈등해결' 영역과 '관계형성능력' 전체의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인원수가 적어 Wilcoxon 부호-서열 검증을 실시한 B그룹(세종시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은 '관계형성능력'의 전체 및 하위 영역(의사소통, 자기이해, 갈등해결, 공감)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향상되었다.

둘째, 고등학생을 위한 '건강한 커플관계' 교육은 고등학생의 결혼 가치관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A그룹(S고등학교)에서는 '결혼 가치관'이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지만, B그룹(세종시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커플관계'교육은 고등학생들이 건강한 커플관계 형성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깊이 있게 탐구해 봄으로써 가정과 교과역량인 '관계형성능력'을 함양하고 결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논문접수일자: 2019년 11월 13일, 논문심사일자: 2019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12월 28일